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A Study on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학 전공

교수 이기숙

강사 김현지

Major of Family Studies, Silla Univ.

Prof. : Lee, Ki-sook

Lecturer : Kim, Hyun-ji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network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The participants were 314 men who were married living in Pusan, aged between 40 and 59, having occupation an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Social Networks Sca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nge of the social contact with men's own kin was wider than women's. In the contact frequency of middle-aged men, primary networks were shown more frequent contact than the secondary networks. I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e function of social networks, kinship of the middle-aged men, their partners and friendship networks we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six networks, which agrees the fact that kin are still the primary source of social support.

Secon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lower than family-related satisfaction and work-related satisfaction. In the work-related satisfacti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as lower than the other sub-categories.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were affected by Social economic status as well.

주제어(Key Words): 중년기 남성(middle-aged men),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s)

I. 서 론

중년기는 사회·문화·역사적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고,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연구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년기 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남성에 대한 연구(유주연, 1995; 강성희, 1996; 박미석, 1996; 서정아, 1998; 김명자, 1998)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남성의 직업역할과 심리적 건강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장년기 남성들에게서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홍승직, 1990).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성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양극화된 이중적 가치관 속에서 직장과 가족 모두로부터 큰 역할갈등과 부담을 겪고 있어 중년기 남성이 현재 처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사회관계망(박수정, 1992)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의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수정(199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은 관련성이 있다. 즉, 중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관계망의 접촉범위에서 친정친척 변인과 사회관계망의 기능 중 정서적 지원, 사교적 지원, 도구적 기능 변인이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이 높았다. 그리고 강성희(1996)가 남녀의 사회관계망을 비교고찰한 것에 의하면,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있어서는 이웃관계를 제외하고는 동료, 친인척관계에서 모두 남성이 더 컸다.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접촉범위와 접촉빈도에 영향주는 변인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범위가 넓고 빈도는 많았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중년기 여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 중년기 남녀의 사회관계망 비교 연구 등을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특성과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중년기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연구의의를 지닐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남성의 특성

중년기에 대해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개인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등등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등 시간전망이 변하게 되며, 개인의 생애와 보다 넓은 사회환경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자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본다(박수정, 1992). 또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중간세대로서,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삼는 한국가족에서는 독립하고자하는 자녀와 자녀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노부모의 권위의식, 의존적 욕구사이에서, 두 세대 모두에게 정서적, 물질적 자원의 주된 제공자로 부담이 큰 시기이다(윤진, 1985).

중년기 남성(middle-aged men)의 경우 노부모의 노쇠에 따라 가부장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에 따르는 억압과 죄책감을 경험하고 자녀의 성장으로 결혼생활, 가족의 의미에 회의를 느낀다고 하나, 사회생활, 직업보다는 가족생활을 더욱 중요시하기 시작하며(김명자, 1989),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의 관련성이 지적되어(Tamir, 1982) 중년기 연구에 있어서 사회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명자(1989)는 사회관계를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케 하며, 비상시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년기는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다른 시기보다도 여러 개인 및 집단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

다. 그러나 남성의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남성이 중년기에 들어서서 친구관계나 지역 사회 관계에 새로운 흥미를 보이는가, 아니면 대인관계가 저조해지는 일관된 특성이 보이는지는 계속 연구되어야 될 점이다.

2.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은 가족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외부사회와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집합체’로서의 가족의 특성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개인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로 인식되어진다(박수정, 1992; 원효종, 1997).

Milardo(1988)는 사회관계망을 특정 개인 혹은 부부가 알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ott(1971)는 부부의 역할 구조가 사회관계망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형태 및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어, 사회관계망이란 가족 성원들이 외부 사회와 맺고 있는 제 관계로서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사회 단체 성원 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강성희(1996)는 한 개인이 알고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으로서,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일차적인 사회관계망과 자발적 단체 성원, 직장 동료와 같은 이차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1) 사회관계망의 범위

선행연구에서 사회관계망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범위는 친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전형적인 일차적 관계와 직장, 종교단체, 혹은 사회적 단체 등 사회조직에 참여하면서 형성한 동료관계로 구분된다.

친족관계는 혈연적 친밀성이나 상호 도움에 대한 의무에 근거하며 접촉빈도나 친밀도가 크고(이경희, 1988),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므로 다른 어떤 유형의 사회적 관계들보다도 강한 유대를 형성한다(원효종, 1997). 그러므로 친족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혈연관계를 중요시하

는 우리 나라에서 친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결혼 후 부인이 남편의 친족관계로 흡수되는 가족제도에서 보면 친가 친척이 처가 친척보다 더 원활한 상호작용이 기대된다.

직장이나 자발적 단체의 동료관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성된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집단에의 참여에 근거하여 발달된 사회적 관계이다(오승환, 1990).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일차적 관계들에 비해 상호작용의 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친족관계와 같은 일차적 관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정보 제공, 공적 관계의 편리성 등)를 제공하든지 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구직 시에는 일차적 관계들보다 더 기능적이다(원효종, 1997).

2) 사회관계망의 구조

사회관계망의 구조에는 크기, 관계, 지리적 거리, 접촉 빈도, 관계의 지속 기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강성희, 1996).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인은 크기와 접촉 빈도로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이 변인을 다루어 왔다.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으로서, 한 개인이 알고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수의 크기이며(원효종·옥선화, 1993),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또한 관계망의 크기 속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또는 조직도 포함하게 된다(오승환, 1990).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친척 관계망이 다른 관계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여전히 친척관계망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강성희, 1996).

사회관계망의 접촉 빈도는 한 개인이 사회관계망의 구성원과 전화, 편지, 방문 등으로 통하여 얼마나 자주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말한다(강성희, 1996). 미국의 중년 여성은 부모, 기혼 자녀와 가장 많이 접촉하고, 그 다음이 형제 자매, 시가 친척의 순으로 접촉하며 친구와 가장 적게 접촉한다고 하였다(White, 1992).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오(1987)는 대도시 주민은 친척과는 한 달에 평균 5.3

회, 학교 동창과는 한 달에 평균 3.9회 만난다고 하였다. 최덕신(1993)은 중년기 여성의 경우, 친척을 제외한 다른 사회관계망 구성원들과의 전화 통화 빈도는 이웃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학교 동창, 자발적 단체 성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성희(1996)는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는 친척과 친구와는 한 달에 한 두 번, 이웃과는 거의 매일, 자발적 단체 성원과는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만나며, 전화 통화의 경우에는 친척과는 일주일에 한두번, 친구, 자발적 단체 성원과는 한 달에 한두번, 이웃과는 몇 달에 한두번 정도 한다고 하였다.

3) 사회관계망의 기능

(1) 정서적 기능

정서적 기능은 문제 해결에 대한 충고나 애정과 같은 심리적 지지를 말한다(이경희, 1988; 박수정, 1992). 오승환(1990), 김정자(1990), 신기영(1991), 강성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기능은 다른 기능들에 비해 비교적 덜 수행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관계들 중에서는 친척과 친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일손적 기능

일손적 기능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물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이경희, 1988). 선행 연구(이동원, 1984; 이성희, 1986; 이광자, 1988; 김경원, 1989, 강성희, 1996)에 의하면 일손의 기능의 수행정도는 친구보다는 이웃이, 시가 친척보다는 친정 친척이 더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강성희, 1996) 일손적 기능에서는 처가 친척이 가장 많은 일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물질적 기능

물질적 기능이란 물품이나 돈의 제공 혹은 대여를 말한다(최정아 외, 1992; 강성희, 1996). 선행 연구(이동원, 1984; 유가효, 1984; 김정자, 1990; 강성희, 1996)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일수록 기혼 여성은 시가 친척보다는 친정 친척으로부터 물질적 기능을 제공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성의 경우에는 친가

친척으로부터의 제공을 많이 받고 있었다.

(4) 친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란 경조사나 여가시의 대인적 교류를 말한다(이경희, 1988; 박수정, 1992).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 친척과(이경희, 1988; 신기영, 1991; 박수정, 1992; 강성희, 1996), 남성의 경우에는 친구와 친교적 기능이 높았다(강성희, 1996).

3.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삶의 전 전함을 상징하는 개념들 중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서정아, 1998), 종속변수로써 성인 발달의 척도로 사용되지만(김수진, 1989), 그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다(박수정, 1992). 즉 심리적 복지감은 다양한 하위개념으로 구성되며(Umberson과 Gove (1989); 박수정(1992); 진미정과 옥선화(1994)),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연령은 가장 크게 영향미치는 변인으로,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떨어지며(장재정, 1981; 김명자, 1989; 최덕신, 1993), 중년기 남성에서는 가족 특성이, 중년기 남성에서는 직업 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끼쳤다(서정아, 1998).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중년기의 위기감 해결에 도움을 준다(안귀여루, 1988). 즉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은,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자기존중감을 높여주며 정신신체적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므로 친척간의 유대나 친구관계 등을 통해 의지하며 지낼 수 있다면 복지감에 좋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지각하는 심리상태, 가정생활과 일관계 만족도를 뜻하며,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은 중년기 남성이 외부사회(친가친척, 처가친척,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직장 동료)와 맺고 있는 제 관계(접촉 범위, 접촉빈도, 상호작용)와 제 교류(정서적 기능,

일손적 기능, 물질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세부터 59세까지의 중년기 기혼 남성으로 직업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시켰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 조사이었고, 314명의 응답자료가 최종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7.5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 측정도구는 강성희(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접촉 범위는 친가 친척, 처가 친척,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 직장 동료의 6가지 영역별로 의례적 범위와 친밀한 범위를 각각 물었으며, 자기 기입식으로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는 친척,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 직장 동료의 5가지 영역별로 직접 만남과 전화 통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측정했으며,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몇 달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접 만남과 전화 통화 외의 다른 연락망이 있는지와 그 빈도도 측정했다.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기능은 부부간의 일, 자녀양육, 집안의 중요한 결정사항, 자신의 문제 상의 등의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손의 기능은 아플 때 도와줌, 손님 치를때나 이사할 때 도와줌, 평소 잔일을 도와줌, 자녀 돌봐줌의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적 기능은 소액의 돈 빌려줌, 거액의 돈 빌려줌, 보증을 서 줌, 물품을 빌려줌의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교적 기능은 특별한 일 없이 서로 만남, 휴가를 함께 보냄, 모임에 같이 참석함, 경조사가 있을 때 방문함 등의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가정생활만족도, 일관계만족도, 심리상태의 3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서정아(1998)의 척도에서 8문항을, 일관계만족도는 서정아(1998), 이승아(1998)의 척도에서 20문항을, 심리상태는 연구자가 관련문헌에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관련 18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각 하위영역 내 문항신뢰도 계수값 (Cronbach's α)은 .84, .62, .7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빈도분포,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원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대상자의 연령은 45-49세 43.5%, 40-44세 32.2%, 50-54세 18.8%, 55-59세 4.5%로 대상자가 40대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은 100-199만원 49.5%, 200-299만원 24.9%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49.8%이었다. 현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5년 미만에서 25년-29년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자영업(29.3%)과 사무직(23.1%)이 가장 많다.

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

1) 접촉 범위 및 빈도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의 접촉 범위 및 빈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접촉 범위를 살펴보면 의례적으로 지내는 친가는 7촌, 처가는 5촌까지였고 친밀하게 지내는 친가는 5촌, 처가는 4촌까지였다. 의례적으로 지내는 친구는 평균 13명, 이웃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배경변인	구 분	빈도(%)	배경변인	구 分	빈도(%)
연 령	40-44세	104(33.2)	종 교	기독교	34(11.1)
	45-49세	136(43.5)		불교	145(47.5)
	50-54세	59(18.8)		천주교	22(7.2)
	55-59세	14(4.5)		기타	11(3.6)
출생순위	장남	108(34.5)	부인취업여부	없음	93(30.5)
	차남 이하 외아들	188(60.1)		전업주부	182(59.3)
		17(5.4)		취업주부	128(40.7)
사회경제적 지위	상	56(19.2)	부인직업	전문직	13(10.3)
	중	192(62.6)		관리직	1(.8)
	하	56(18.2)		사무직	7(5.6)
직 업	전문직	24(7.7)		영업직	9(7.1)
	관리직	41(13.1)		자영업	43(34.1)
	사무직	72(23.1)		생산직	22(17.5)
	영업직	13(4.2)		단순노무직	6(4.8)
	자영업	82(29.3)		서비스직	8(6.3)
	생산직	26(8.3)		학생	2(1.6)
	단순노무직	9(2.9)		기타	15(11.9)
	서비스직	5(1.6)		1명	20(6.4)
	기타	40(12.7)		2명	196(62.8)
				3명	74(23.7)
소 득	100만원 미만	33(10.7)		4명	18(5.8)
	100-199만원	153(49.5)		5명 이상	4(1.3)
	200-299만원	77(24.9)	가족주기*	학령전기	3(1.0)
	300-399만원	27(8.7)		초등학생기	31(9.9)
	400만원 이상	17(6.1)		중·고교생기	152(48.7)
현직장경력	5년 미만	63(20.1)		대학생기	87(27.9)
	5-9년	58(18.5)		고·대졸의	27(8.7)
	10-14년	52(16.6)		미혼 자녀	12(3.8)
	15-19년	46(14.6)		기혼 자녀	
	20-24년	47(15.0)		부모	41(13.1)
	25-29년	12(3.0)		장모, 장인	10(3.2)
	30년 이상	36(11.5)		파로 삼	226(72.0)
학 력	고졸 이하	47(15.0)		돌아가심	37(11.8)
	고 졸	156(49.8)	부모동거 여부		
	전문대졸	25(8.0)			
	대 졸	58(18.5)			
	대졸 이상	27(8.6)			

* 가족주기는 첫째자녀의 발달단계로 구분하였음.

은 19명, 단체 성원은 27명, 직장 동료는 29명이었고,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는 5명, 이웃은 6명, 단체 성원은 8명, 동료는 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가보다 친가와의 접촉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까지 우리 나라의 중년기 남성은 처가 친척보다는

친가 친척과 더 넓은 교류를 가지는 부계친적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강성희(1996)와 박시라·옥선화(1999)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접촉 빈도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친척의 경우

<표 2> 중년기 남성의 접촉 범위 및 빈도

	친척					
	친가	처가	친구	이웃	자발적단체	직장동료
접촉범위*						
의례적 범위	7촌	5촌	13명	19명	27명	29명
친밀한 범위	5촌	4촌	5명	6명	8명	5명
접촉빈도*						
직접만남						
거의 매일	13(5.0)	53(19.2)	83(36.7)	12(7.7)	149(65.1)	
일주일에 한두번	37(14.2)	105(38.0)	58(25.7)	24(15.5)	37(16.2)	
한달에 한두번	101(38.8)	62(29.3)	45(19.9)	62(40.0)	29(12.7)	
몇 달에 한두번	84(32.3)	23(7.3)	32(14.2)	31(20.0)	10(4.4)	
일년에 한두번	25(9.6)	3(1.0)	8(3.5)	29(16.8)	4(1.7)	
합	260(100)	276(100)	226(100)	155(100)	229(100)	
전화연락						
거의 매일	21(8.0)	63(22.5)	17(8.8)	9(6.5)	59(29.1)	
일주일에 한두번	92(35.1)	117(41.8)	43(22.3)	28(20.1)	71(25.0)	
한달에 한두번	95(36.3)	80(28.6)	60(31.1)	57(41.0)	37(18.2)	
몇 달에 한두번	42(16.0)	17(6.1)	38(19.7)	21(15.1)	22(10.8)	
일년에 한두번	12(4.6)	3(1.1)	35(18.1)	24(17.3)	14(6.9)	
합	262(100)	280(100)	193(100)	139(100)	203(100)	

*접촉범위는 평균값, 접촉빈도는 인원수(%)로 표시.

에는 한 달에 한두번(38.8%), 친구는 일주일에 한두번(38.0%), 이웃은 거의 매일(36.7%), 단체 성원은 한 달에 한두번(40.0%), 직장 동료는 거의 매일(65.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가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장 동료와 이웃은 매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척과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난다는 것은 선행연구(유가효, 1984; 강성희, 1996)과 동일하다.

전화 통화의 경우에는 친척이 한 달에 한두번(36.3%), 일주일에 한두번(35.1%)이 가장 많았고, 친구는 일주일에 한두번(41.8%), 이웃은 한 달에 한두번(31.1%), 자발적 단체 성원과는 한 달에 한두번(41.0%), 직장동료는 거의 매일(29.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동료와 가장 빈번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와 가장 빈번하게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친척이나 친구와는 달리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친가와의 상호작용은 정서적·일손적·물질적·친교적 기능이 다른 관계망과 비교해 볼 때 높게 나타나 중년기 남성은 친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손적·물질적 기능이 가장 높아 정서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다른 사회관계망의 정서적 기능의 점수와 비교해 볼 때, 친가와의 정서적 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중년기 남성은 다른 관계망의 구성원보다 친가 친척에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강성희(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처가의 경우에는 물질적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일손적 기능, 친교적 기능, 정서적 기능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가의 경우에도 물질적·일손적·친교적 기능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 활발한

〈표 3〉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

M(SD)

	친가	처가	친구	이웃	자발적단체	직장동료
정서적 기능	11.75(3.87)	10.72(3.73)	11.37(3.39)	8.10(3.30)	7.36(3.52)	9.46(3.58)
일손적 기능	14.03(3.78)	13.87(3.67)	12.23(3.46)	11.11(3.75)	8.85(3.93)	10.92(3.84)
물질적 기능	14.14(4.05)	14.04(4.01)	12.87(3.65)	10.78(3.60)	8.77(3.98)	10.96(3.97)
친교적 기능	13.70(3.30)	13.39(3.13)	14.15(3.22)	11.30(3.66)	10.37(4.29)	12.32(3.90)

〈표 4〉 친가 친척과 처가 친척의 사회관계망 상호작용 내용 비교

변수	비교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정서적 기능	친가 친척	279	10.65	3.68	7.918***
	처가 친척	279	11.81	3.87	
일손적 기능	친가 친척	284	13.82	3.66	1.732
	처가 친척	284	14.09	3.78	
물질적 기능	친가 친척	288	14.04	4.01	1.073*
	처가 친척	288	14.17	4.06	
친교적 기능	친가 친척	281	13.41	3.13	2.103
	처가 친척	281	13.69	3.31	

*P < .05, **P < .01, ***P < .001

상호작용을 보임을 알 수 있으나, 정서적 기능에서는 친가나 친구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평소 가깝게는 지내지만 위의 두 집단보다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친구 집단의 경우는 친교적 기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물질적 기능, 일손적 기능, 정서적 기능의 순서로 나타났다. 친구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친교적 기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웃 집단에서는 모든 점수가 낮게 나타나서 상호작용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은 일손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적 기능, 제일 낮게 나타난 것이 정서적 기능이다. 이것은 중년기 부인의 이웃 집단과의 사교적 기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친구 집단인 것으로 보고된 박수정(1992)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전업 주부로서 이웃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여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발적 단체의 집단도 이웃 집단과 마

찬가지로 모든 점수가 3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기능이 친교적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 일손적 기능, 물질적 기능, 정서적 기능의 순이다. 특히 자발적 단체 집단은 다른 점수도 낮지만 정서적 기능의 점수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 집단에서는 친교적 기능, 일손적 기능, 물질적 기능, 정서적 기능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친가, 처가, 친구의 집단에서는 거의 모든 기능이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에 비해 이웃 집단과 자발적 단체 집단, 직장 동료 집단은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친척 집단과 친구 집단은 혈연이나 정서적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반해 다른 집단은 공적인 일이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맺어진 집단이므로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집단일수록 다른 일손적 · 물질적 · 친교적 기능에서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 내용 별로 정리를 해 보면, 중년기 남성은 정서적 · 일손적 · 물

질적에서 친가 친척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공을 받고, 친교적 기능에서는 친구 집단과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친구 집단이 친교적 기능에서 중요한 사회관계망으로 나타난 것은 강성희(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친가 친척과 처가 친척의 상호작용 기능을 비교하면, 정서적 기능과 물질적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친가 친척과는 혈연적 관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5〉 참조), 먼저 현재의 심리상태는 긍정적 정서에서는 평균값이 2.96으로 중간값인 3점에 가까이 나왔고, 부정적 정서는 2.29로 중간값인 3점보다 낮게 나와 전체적인 심리상태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서는 평균값이 3.91로 나타나 결혼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역할만족도의 평균값은 3.62로 나타나 대체로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관계만족도를 살펴보면, 먼저 일용통성의 평균값은 3.57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와 대체적으로 일용통성이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 직업의 29.3%가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시간을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업안정성의 평균값은 3.73

〈표 5〉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

변수	M(SD)	변수	M(SD)
심리상태		일관계만족도	
긍정정서	2.96(.72)	일용통성	3.57(.96)
부정정서	2.29(.78)	직업안정성	3.73(.91)
가정생활만족도		동료관계의질	3.63(.80)
결혼만족도	3.91(.97)	직업만족도	2.85(.96)
자녀만족도	3.62(.83)	직업스트레스	2.87(.89)
이중부담	2.83(.79)		

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의 질의 영역에서는 평균값이 3.63으로 대체로 동료나 상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의 평균값은 2.85로 중간값인 3점에 못미치게 나와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약간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83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일에 대한 이중적 부담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2.87로서 조사 대상자들은 가정과 일에 대한 이중적 부담을 그리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

1) 사회관계망 접촉 범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사회관계망의 범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을 3개의 하위 영역에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관계망의 범위는 친구 집단, 이웃 집단, 자발적 단체 집단, 직장 동료 집단 순이

〈표 6〉 사회관계망 범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F값)

		심리상태	가정생활만족도	일관계만족도
친가	의례적	.897	.526	.572
	친밀한	.679	.329	1.331
처가	의례적	.893	.110	.814
	친밀한	.714	1.265	.438
친구	의례적	4.849**	6.325**	3.598*
	친밀한	3.486*	4.849**	4.089**
이웃	의례적	2.391	1.306	3.765*
	친밀한	4.138*	3.222*	1.429
자발적 단체	의례적	7.864***	2.735	3.372*
	친밀한	5.770**	2.846*	1.989
직장동료	의례적	1.742	1.308	2.776
	친밀한	4.179*	4.155*	.170

*P < .05, **P < .01, ***P < .001

었고, 친가와 처가의 관계망 범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집단의 사회관계망 범위는 심리적 복지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고, 친밀한 이웃 집단은 심리 상태와 가정생활만족도에, 의례적 이웃 집단은 일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례적 단체 성원은 중년기 남성의 심리 상태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고, 일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직장 동료 집단은 심리 상태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2) 사회관계망 접촉 빈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사회관계망의 접촉 빈도에 따른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본 결과, 단지 직장동료와의 전화 빈도만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끼칠 뿐,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 동료와의 전화 빈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다(〈표 7〉 참조).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접촉 범위에 있어서는 친구 집단, 이웃 집단, 자발적 단체 집단, 직장 동료 집단이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활발한 협연

〈표 7〉 사회관계망 접촉 빈도에 따른 복지감 (F값)

		심리상태	가정생활만족도	일관계만족도
친척	만남	1.525	.366	2.243
	전화	.779	.346	.350
친구	만남	2.605	.171	.813
	전화	2,000	1.329	.458
이웃	만남	1.074	1.740	.685
	전화	.421	2.772	.639
자발적 단체	만남	2,150	1.762	1.513
	전화	.629	.012	.512
직장동료	만남	.818	.156	1.835
	전화	3,339	1.243*	.168

*P < .05

관계가 아닌 다른 사회관계를 더 많이 맺는 중년기 남성이 그렇지 않은 중년기 남성보다 심리적 복지 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실태를 분석코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40~59세의 직업과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을 조사 대상자로 삼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의 범위를 살펴보면, 처가 친척보다는 친가 친척과 더 넓은 범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접촉 빈도에 있어서 직접 만나는 것은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친척의 자발적 단체 성원의 순으로 자주 만나며, 전화 통화는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의 순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접촉 빈도에 있어서 친척과의 빈도가 약했다.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에 따른 상호작용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친가와는 정서적, 일손적, 물질적, 친교적 기능에서 모두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처가와는 일손적, 물질적, 친교적 기능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친구와는 일손적, 물질적, 친교적 기능을 활발히 하며, 특히 친교적 기능이 다른 관계망이나 기능에서보다 특히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과는 그리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직장 동료와는 친교적 기능에서만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둘째,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면, 중년기 남성은 개인의 심리 상태, 가족생활 만족도 영역에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관계 만족도 영역에서는 점수가 낮았다. 일용통성이나 직업안정성, 동료관계의 질은 직업만족 항목보다는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구와 이웃, 자발적 단

체 성원과 직장 동료들과 사회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집단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빈도에 있어서는 직장 동료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직장 동료와 자주 전화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심리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처가 친척보다는 친가 친척과 더 넓고, 처가 친척보다 친가 친척과의 상호작용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가 친척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은 아직 남성의 친족관계가 부계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친구 집단은 친척 다음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수행도가 높은 관계망으로 나타나 중년기 남성에 있어 친구 관계망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 부산시의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심리상태, 가족생활 만족, 일관계 만족으로 나누어 점수를 비교한 바, 가족생활만족은 개인적 심리상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년기 남성의 경우 가족의 안녕보다는 자신에 대한 불안 등이 더 자주 나타남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일관계 만족에서는 직업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중년기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상황보다는 직업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중년기 남성들도 주요 관심이 가족중심적이기보다는 일중심적이며, 동시에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이 직업환경에서 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그 직업자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관계망의 범위가 큰 집단이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친척 등의 일차적 집단의 범위보다는 이차적 관계망의 범위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척과의 관계망의 범위가 이차적 관계망보다 의무적이고 주어진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이차적 관계망은 개인 스스로

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을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고 조사대상자의 직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9.3%로서 전체 중년기 남성에게 일 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성을 조사대상자로 할 경우, 직업 변인의 표집 상황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전국적 분포를 가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자료를 측정할 때에는 여러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분석을 할 때는 하위영역을 합한 상위영역별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정밀히 고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별로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고찰하는 것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관계망을 연구함에 있어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 직장 동료 관계에서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까지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관계망 별로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를 모든 측면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심층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희(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자(1998). 중년기 밸달. 서울: 교문사.
- 김정오(1987). 도시공동체의 일차적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자, 변화순, 윤영숙, 강선혜, 제갈영(1990). 영세 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시라, 옥선화(1999).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 유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24, 49-62.
-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 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원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완충 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원효종, 옥선화(1993).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76-190.
- 원효종(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가효(1984). 도시 중류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19-140.
- 유주연(1995).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1996).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에 관한 일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63-176.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1)-시가 및 친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 7-36.
- 이성희(1986). 부부역할과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 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정(1981).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덕신(1993).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아, 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청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2(1), 65-78.
- 홍승직(1990). 산업화에 따른 한국인 정체성의 변화. 서울: 나남 출판사.
- Bott, E. (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 New York; The Free Press.
- Milardo, R. M. (1989).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identification of social networks of spou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65-174.
- Tamir, L.M. (1982). *Men at middle ag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 Umberson, D. and Gove, W. R.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White, Lyhn. K., Agnes Riedman (1992). Ties among adult sibling. *Social Force*, 71(1), 85-102.